

북한문학사와 향가*

조규익**

<차 례>

1. 서론
2. 시기에 따른 북한 문학사가들의 관점
 - 2.1 장르 형성 및 전개에 대한 합리적 추론과 작품내용의 사회주의적 합법칙성: 『조선문학통사(상)』
 - 2.2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지속과 주체미학의 가세 :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와 『조선문학사 1』
3. 결론

<국문초록>

『조선문학통사(상)』(1959) ·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1977) · 『조선문학사 1』(1991) 등이 본고에서 사용한 텍스트들인데, 전자는 주체사상 등장 이전의 저술, 후2자는 주체사상 정립 이후의 저술들이다. 『조선문학통사(상)』은 맑스-레닌주의적 방법과 역사주의에 기초하여 문학사를 서술했음을 밝혔고, 후2자들은 그와 함께 주체미학적 관점을 강조했다. 향가가 ‘인민대중의 집단적 노동요’ 즉 ‘두레노래’에서 나왔다는 관점은 북한의 모든 문학사들에 공통된다.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필수요건인 ‘인민성 · 당성 · 노동계급성’ 가운데 인민성과 노동계급성을 강조할 필요 때문이었을 것이다. 노동계급으로서의 인민대중 속에서 불리던 생활가요들이 상당기간 후에 고안된 향찰 書寫法으로 기록되면서 구체적인 시 형식으로 나타난 장르가 향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書寫의 과정은 형식적 整齊를 이루어 나가던 加工의 과정이었다. 그

* 이 논문은 2013년도 숭실대학교 교원 연구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숭실대학교

리고 노래 즉 ‘ 읊던 시가’에서 시문학 즉 ‘ 쓰는 시가’로의 전환을 향가에서 찾아낸 점은 시가사 전개 양상의 합리적 발견이었다. 개별 노래들의 해석에서 이념적 과잉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문학을 ‘ 사회주의 혁명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였다. 비록 고전시대의 향가라 해도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이론의 합목적적 기준에 맞도록 해석해야 했고, 그 핵심 내용인 ‘ 인민성에 기반을 둔 집단성, 계급투쟁, 반외세 투쟁’ 등에도 부합되어야 했다.

주체사상의 시기에도 문학사 서술의 기조는 앞 시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주체사상 자체가 정치·외교적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 삶의 노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견지해오던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미학의 근본까지 변화시켜야 할 이유는 없었다. 주체미학을 문학사의 강령으로 내세웠음에도 앞 시기의 문학사에 제시한 작품 해석의 경향이 지속된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향가에 대한 북한문학사들의 해석이 비교적 정돈된 느낌을 주는 것은 향가들이 향찰이라는 우리 독자적 표기체계로 정착된 최초의 노래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작품에서 읽어낼 만한 계급이나 이념투쟁 혹은 외세와의 투쟁적 요소 등이 적었기 때문이다. 향가 장르의 역사적 전개나 작품의 해석에서 이념 과잉으로부터 생겨나는 작위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나마 그들 논리의 합리성을 인정하게 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핵심어 : 북한문학사, 향가, 향찰, 계급투쟁, 반외세 투쟁,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주체사상

1. 서론

‘사녀가란 위로는 조정과 교묘의 가악이거나 위정자의 規戒·諷詠, 아래로는 낭도·승려들의 頌禱와 酬唱, 유명 歌人들의 수시 唱詠 혹은 민요 일반이거나 남녀노소의 풍요에 걸쳐 있으며, 상대의 샤만적 전통을 띠고 있는 노래의 부류’임을 설파한 양주동¹⁾ 이래 학계에서 고전시가의 본격 출발 장르로 연구되어왔다. 특히 연구 진행 과정에서 이념을 바탕으로 한 해석상의 차이는 부득이한 일이었으나, 양주동·홍기문²⁾ 등 초창기 학자들의 원본해독 작업이 연구의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향가에 관한 남북 간의 견해 차이가 그다지 컸다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앞서 인용한 것처럼 양주동이 유리왕 대 <兜率歌>³⁾를 지칭하던 ‘사녀가’의 한 성격을 ‘조정 교묘의 가악’이라 규정했고 후대의 학자들이 아예 그것을 ‘신라의 악장’⁴⁾이라 한 반면, 북한에서 ‘로동가요적 성격의 민요’⁵⁾로 본 것은 ‘전체 인민이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학이라야 참다운 문학이라는 인민성의 원칙과 군중예술론의 지향’⁶⁾ 때문에 생겨난 차이라 할 수 있지만, ‘노래로 출발한 향가가 후대에 기록으로 정착된 장르’라는 인식만큼은 남북이 공통된다. 향가라는 단일 대상을 두고 남북한이 보여주는 인식의 같고 다름은 여타 장르들에서도 큰 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초기 고전시가들 가운데 향가가 사실상 본격적인 출발기의 장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사의 기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소통 여하에 따라 남북한 간에 개재하는 역사 인식

1) 양주동, 『增訂 古歌研究(重版)』, 일조각, 1981, 54~55쪽.

2) 홍기문, 『향가해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1956.

3) 북한의 문학사가들은 유리왕 대의 ‘兜率歌’를 대개 ‘두렛노래’와 결부시켜 ‘두룻가’로 읽는다. 북한의 문학사를 거론하는 본고에서도 ‘두룻가’로 읽어, 같은 한자체목을 ‘두술가’로 달리 읽는 월명사의 그것과 구분한다.

4)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2005, 144쪽.

5) 정홍교, 『조선문학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51쪽.

6) 김대행, 『북한의 시가문학』, 문학과비평사, 1990, 15쪽.

이나 관점의 차이를 좁힐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학계에서 거론 중인 이른바 ‘통일문학사’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의 태도나 내용 혹은 해석으로 보아 북한문학사는 주체사상 이전과 이후가 약간 다르고, 주체사상 직후와 1990년대 이후의 그것들이 약간 다르다. 학문적 조류나 방법론에 의해 수정되어가는 남한과 달리 시종 일관 이념에 지배되어 온 것이 북한인데, 그 중에서도 문학사는 더욱 민감하다.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는 『조선문학사 1』의 머리말에서 “문예학자들은 우리 당이 밝혀준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조선문학사 서술을 위한 탐구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미 1950년대에 <<조선문학통사>>(상·하)를, 1970년대에 <<조선문학사>>(전 5권)를 세상에 내놓았으며 해방 후 우리 문예학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이번에 전 15권의 <<조선문학사>>를 집필·출판하게 되었다.”⁷⁾고 함으로써 이 3종의 문학사가 시기별로 북한의 이념과 부합하는 문학사들임을 알 수 있다.⁸⁾ 주체사상 이전인 『조선문학통사(상)』의 머리말에서 천명한 원칙[‘력사주의, 열렬한 애국주의, 풍부한 인민성, 높은 인도주의의 전통,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지향성’ 등],⁹⁾ 주체사상의 첫

7) 정홍교, 『조선문학사 1』, 2쪽.

8) 북한에서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와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등은 문학사를 비롯한 문학연구물들을 펴낸 대표적 기관들이다. 전자에서는 대략 4종의, 후자에서는 대략 6종의 문학사들을 각각 펴냈는데, 이것들 모두 이념적 통제 하에 이루어진 것들이나 記名 저자들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하는 3종의 문학사들[『조선문학통사』(상/하)·『조선문학사』(전 5권)·『조선문학사』(전 15권)]은 각각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등으로 약간씩 저술 주체가 달리 표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같은 기관이고 구성 멤버만 시기에 따라 교체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정홍교’ 개인 이름이 명시된 세 번째 저술[『조선문학사』(전 15권)] 중의 1권만 빼고는 모두 구체적인 저술자가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집계 창작이거나 그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이 점은 과학원 문학연구소 혹은 주체문학연구소로 명시된 저술들에서 시기에 따른 이념적 변화의 맥을 잡기가 수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고에서는 이 3종의 문학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

단계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¹⁰⁾의 머리말에서 천명한 원칙,¹¹⁾ 둘째 단계 『조선문학사 1』의 머리말에서 천명한 원칙¹²⁾ 등은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최근까지 이념의 변모에 따른 문학작품의 해석이나 문학사의 기술이 진화·확충될 것을 암시할 뿐 아니라, 향후 북한의 문학사들이 지향해야 할 노선을 명시했다는 의미를 지닌다.¹³⁾

본고에서는 이 책들에 해석·기술된 향가 부분을 중심으로 북한문학사의 시각을 살펴보기로 한다.

-
- 10)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지음,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7. 본고에서는 정홍교의 책[『조선문학사 1』]과 구분하기 위해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로 표기한다.
- 11)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1쪽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 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 투쟁시기에 이르러 주체의 빛발 아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으로 찬란히 개화 발전하였으며 해방 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새로운 사회 역사적 환경에서 전면적으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우리나라 문학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깊이 연구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우리 문예학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참조.
- 12) 『조선문학사 1』, 2쪽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학사 연구가 사회주의 문화건설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 헤아리시고 이 사업이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 혁명의 리익에 맞게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끊임없이 제기되는 모든 리론 실천적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참조.
- 13) 『조선문학통사(상)』에서 말한 ‘력사주의, 열렬한 애국주의, 풍부한 인민성, 높은 인도주의의 전통,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지향성’ 등은 사회주의의 보편적 문예이념으로 전 시기에 걸쳐 공통적이고,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에 이르러 비로소 ‘주체’가 등장하는데, 그 근원으로서 김일성의 이른바 항일혁명투쟁을 제시했다. 즉 주체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결합으로 새로운 문예학이 개화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조선문학사 1』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인민의 지향과 혁명의 이익에 맞게 문학사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론적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 지침을 주었다는 것인데, 바로 앞 단계에서 언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찬란한 개화를 위해 쏘여주는) 주체의 빛발’이 이 단계에서는 ‘(인민을 위한 문학사 연구에 이론적 실천적 기초가 되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한문학사관으로서의 주체사상이 확충·진화되는 양상은 다른 자리에서 상론하고자 한다.

2. 시기에 따른 북한 문학사가들의 관점

2.1 장르 형성 및 전개에 대한 합리적 추론과 작품내용의 사회주의적 합법칙성: 『조선문학통사(상)』

2.1.1 장르형성 과정 및 형식적 측면

노동을 비롯한 실생활에서 노래가 나타났고, 그것이 상당기간 후에 고안된 記寫法으로 기록되는 단계에서 가공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는 설명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이념적 해석을 덧붙인 것이 이 책에 기록된 향가 관련 기술의 핵심이다. 즉 신라 유리왕대의 <두룽가>는 신라의 인민들이 부르던 집단적 노동민요로서의 ‘두렛노래’였고, 신라 음악과 시가의 중심에 있던 ‘사뇌가’는 경주 일대 ‘새늬’ 지방 인민들의 집단 구전민요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 그 사뇌가는 점점 확충되어 ‘신라의 노래’ 또는 ‘향가’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고, 여러 원시 종족의 인민들 사이에서 발전해온 집단적 구전가요들은 개인 창작의 서정시가 발생에 직접적 토대 역할을 했다는 것, 향찰 기사법을 고안하여 그 시가들을 노래 부르는 대로 표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읷던 시가’로부터 ‘쓰는 시가’에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서동요>나 <풍요> 혹은 <혜성가> 등 삼국통일 이전 시기의 노래들을 향찰표기법으로 문헌에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등¹⁴⁾이 특정 지역의 집단노래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향가가 안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부분이다. 특히 ‘노래→(記寫 및 加工 단계)→시문학(즉 향가)’의 과정은 이들이 향가 발생의 문화사적 맥락과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체사상 이후에도 내용의 이념 과잉적 해석만 제외한다면, 장르 발생 과정이나 문화사적 의의에 대하여 제시한 근거들이 비교적 객관적이며 합리적임을

14) 『조선문학통사(상)』, 17~20쪽 참조.

인정하게 만드는 단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벌써 1세기에 집단적인 농경 로동 과정에서 반복적 감탄사를 가진 우수한 로동 민요들을 창조하기 시작함으로써 후일의 서정시(향가)의 먼 원천을 마련한 신라 인민들은 백결, 천상옥개자, 답수 등의 재능 있는 시인들을 자랑하면서 많은 노래들을 공동의 재산으로서 향유하여왔다. 조선어를 기록하는 수단을 소유하게 되자 그들은 우선 이 노래들을 기록하며, 기록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그것들을 가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향찰식 기사법이란 노래를 지을 수 있는 저마다 다 가능하지 않았던 조건 하에서 개인의 서정시들도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만 문학작품으로 될 수 있는 정형들도 벌어졌다. 이러한 계기들에서 향가의 시 형식은 점차 응결되어 왔다. 응결된 기본 형식은 첫째로 전편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 2장은 각각 4시행으로, 제 3장은 2 시행으로 씌어져 있는 데 있다. 둘째로 제 3장을 <락구(落句)>, <격구(隔句)> 기타로 부르며 3장 모두에는 <아야(阿耶)> 기타의 감탄사가 온다. 이와 같은 시 형식은 바로 그것이 인민 가요의 반복적 합창-감탄사[<<삼국유사>>는 그것을 차사(嗟辭)라고 일컬었다(...)] 사이에 독창 문구가 투입된 형식의 발전이다. 즉 제 3장은 합창-감탄사의, 그리고 제 1, 2장은 투입구의 발전인 것이다. 이리하여 인민가요는 자기의 합법칙적 발전 과정에서 고려 시대의 일부 인민 가요들이나 <아리랑>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긴 후렴구를 낳았으며, 서정시 분야에서는 시조나 일부 가사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모두(冒頭)에 감탄적 문구를 가진 중장 또는 제 3 시단(詩段)-이 서정시들은 역시 3장 또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에 도달한 것이다. (...)'향가란 향찰로 기사된 신라 시대의 노래이다' 라는 설명은 문예학적으로는 아무런 의의도 갖지 못한다.(...)기사 수단의 공통성은 어학적으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나 문예학적으로는 부차적이다. <<균여전>>과 <<삼국유사>>에 수록된 25편의 노래들은 인민 창작과 개인 서정시, 2행시와 10행시, 불교 선전과 화랑 찬양, 신라의 노래와 고려의 노래 등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는 그루빠를 형성할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문예학적으로 향가란 형식적으로 조건 지어지는 서정시 그루빠이며 그 형식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라 서정시가 8세기에 확호하게 도달한 3장 10행시의 형식이다.(...)향가란 막연한 조선어 가요가 아니라 일정한 룰조를 가진 3장으로 구성된 서정시이며 그것은 8~9세기를 중심으로 그 이전에 준비기를 가졌고 그 이후에 점차적인 쇠퇴기를 가진 일정한 역사적 시기의 문학 현상이다. 향가의 현존 최종

작품을 우리는 12세기 후반기의 <정과정곡>에서 찾는다.¹⁵⁾

내용상 이 글은 ‘향가 장르의 발생 및 전개사’로 명명될 수 있다. 향가 이전 단계로서 노동요의 존재를 상정한 것이 이 글의 첫 부분이다. 우리 말을 기록하기 위한 표기체계로서의 향찰이 고안되면서 그 노래들은 기록되기 시작했고, 기록되는 과정에서 미학적인 가공 작업도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 작업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현재 향찰로 기록된 향가들이다. 어떤 규모로 기록되었든 저자들이 주목한 점은 전체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두 개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셋째 부분의 첫 행에 落句 혹은 隔句로서의 감탄어가 온다는 점이고, 이 점은 嗟辭를 갖춘 사뇌격의 노래 <두룽가>로부터 향가를 거쳐 고려노래들과 조선조 시조, 가사에까지 연결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향가란 향찰로 기사된 신라 시대의 노래이다’라는 설명이 문예학적으로는 아무런 의의도 갖지 못한다.”는 저자들의 언급은 사실 시가사에서 향가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한 말이다. 즉 향찰이라는 기사법이 어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문예학적으로는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말로 부르는 노랫말을 표기하기 위해 부득이 차자체계인 향찰을 사용함으로써 ‘향가’라는 장르 명을 붙였다면, ‘같은 노랫말을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한글로 바꾸어 표기했을 경우 향가와 다른 장르 명을 붙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로 볼 수 있다. 문예학적 측면에서 앞에 말한 향가의 장르규정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 말하자면 장르를 규정하는 조건으로서의 문예학적 측면에서 향가란 형식적으로 조건 지어지는 서정시 그룹이며, 그 형식이야말로 일정한 율조를 지닌 3장 10행시의 형식으로서 8세기에 그 분명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처럼 8~9세기에 형식을 확고하게 완성한 향가는 12세기 후반기의 <정과정>에서 종말을 고했다고 보았는데, 이 점은 <정과정>이 10구체 향

15) 같은 책, 37~39쪽.

가의 잔존 형태라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견해¹⁶⁾와 약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표기로 기록된 <정과정>이 향찰 표기로부터 벗어나긴 했으나, 3장 10행체의 형식 조건을 갖춘 이상 향가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들의 생각이었다. 말하자면 8~9세기 이전부터 12세기 후반까지 ‘준비기-완성기-쇠퇴기-종말’의 전개양상을 보인 향가를 고대~중세 전반기까지 걸치는 시가장르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관점이었다.

2.1.2 계급적 시각과 이념 과잉의 해석

사뇌가가 발생하던 시기는 집단 노동요가 개인적인 창작시가 단계로 발전되던 시기였는데, 집단가요에서 개인가요로의 전환은 사회·역사적 조건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관점이다. 다음의 언급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각 종족 내부에서 평등적인 집단생활 관계가 붕괴되고 불평등한 관계가 조성되었으며, 결국은 종족 집단 내의 계급적 모순이 첨예화 되어 국가의 형성을 보게 되는 이러한 계급 사회 형성의 사회-역사적 조건은 필연적으로 자기 계급들의 이해 관계를 대변할 계급적 이데올로그들의 출현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문학 분야, 시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의 현상을 낳았다.(...) 사회의 계급적 분화와 함께 자기의 소 집단적 이해 관계를 반영하며 사상 감정들을 대변하는 새로운 시가 작품들이 계급적 이데올로그로서의 개인 시인들에 의하여 창작되기 시작하였다.(...)이리하여 시가는 자기 계급의 이해 관계를 반영하는 사상적 무기로 되는 동시에 또한 자기를 인식하는 개성의 감정과 기분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었다.¹⁷⁾

사회주의 예술에서 중시하던 ‘노동계급성과 인민성’이 이 언급의 핵심

16) 조윤제, 『조선시가사상』, 동광당서점, 1937, 101쪽;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165~168쪽; 조동일, 앞의 책, 316쪽 등 참조.

17) 『조선문학통사(상)』, 18~19쪽.

이며, 그와 관련하여 그들이 중시한 것이 집단가요였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를가>는 노동 인민들 속에서 불려진 ‘두렛노래’ 즉 ‘집단적 노동가요’였으며, 그것의 발전 형태인 ‘사뇌가’ 또한 경주 일대 사뇌 지방 인민들의 ‘구전 인민 가요’의 하나¹⁸⁾라고 본 것이다. 그런 집단가요가 개인 창작 시가의 발생에 토대 역할을 했으며, 그 후 형성된 계급국가의 중심 집단이 소유했던 노래들의 특성이나 시적 형식 등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 그들의 관점이었다. 인용문에서 작동하는 이념성의 근원이 바로 노래의 바탕이 되는 집단성 즉 노동계급성과 인민성이다.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노동계급성을 강화하고 계급적 선을 확립하는 것이 문학예술의 본성과 사명이라는 말인데,¹⁹⁾ 그런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이 잘 알고 좋아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조·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²⁰⁾

사실 <두를가>가 집단노동요라 해도, 그 노래 이후에 등장한 화랑·승려·기타 개인 등 개별 작가들의 서정요로 전환된 향가들을 저자의 주장처럼 ‘사회의 계급적 분화에 따른 소 집단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과물로

18) 『조선문학통사(상)』, 18쪽.

19) 사회과학출판사, 『우리 당의 문예정책』, 사회과학출판사, 1973, 13쪽의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은 그 본성에 있어서 노동계급적이며 노동계급과 그 당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것을 근본사명으로 하고 있다.(…)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노동계급성을 강화하고 계급적 선을 날카롭게 세워야 할 요구는 이 문학예술의 본성과 사명으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나올 뿐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계급투쟁이 계속되며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할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더 절실하고 심각한 문제로 나선다.” 참조.

20) 같은 책, 14쪽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소설, 시, 음악, 영화, 그밖에 다른 모든 예술은 인민대중들이 알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합니다.>>(김일성 저작선집)>>, 2권 578페이지) 우리 당은 문학예술은 인민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이 잘 알 수 있고 그들의 감정에 맞으며 인민들이 좋아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요구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은 그 본성에 있어서 한줌도 못되는 지주, 자본가 계급의 반동적, 반인민적 정책에 복무하는 부르주아 반동문학예술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이다.” 참조.

보는 것은 무리다. 말하자면 이 시기 향가 작자들을 단순히 자기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계급적 이데올로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존 향가들은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서적 반응을 자신들에게 익숙한 표현물로 만들어 부른 것들일 뿐 ‘계급투쟁의 구도’ 속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이념적 산물로 보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북한 정권 초기 문예미학을 정립해 가던 단계에서 창작을 주도해야 할 미학으로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지난 시기 예술 담당 계층 교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잣대로 적용시키고자 한 과잉의욕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작품에 대한 해석 또한 같은 맥락에서 비판될 여지가 많다. 다음의 세 경우가 그것들이다.

① ㉠ 이 노래는 작가가 주술적 목적을 추구하여 부른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당시 신라 인민들이 전개하던 왜구 격퇴를 위한 애국적인 투쟁 현상이 반영되어 있으며²¹⁾/㉡ 설화로 보나 노래의 내용으로 보아 이 작품은 확실히 당시 인민들 속에서 창작되어 류전되던 민요임이 틀림없다. 노래만을 보면 그 속에 풍유적 음향도 울리고 있으나 설화까지를 결부시켜 보면 이 노래는 고대 인민들의 근로 생활과 그들의 소박한 행복에 대한 꿈이 토대로 되어 있는 서정가요 작품임을 알 수 있다.²²⁾/㉢ 이 노래도 향찰법에 의하여 고착된 당시 민요 작품의 하나이다. 이 노래에는 고통스러운 현실 생활에 시달리는 이 시기 인민들의 자탄과 신음의 읊조림 소리가 울리고 있다.²³⁾

② <모죽지랑가>와 <헌화가>가 신흥 군사 귀족들을 중심으로 삼국통일과 외래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전 인민적 력량이 집결된 시대의 소산이라면, 그리고 <월가>가 이미 신라 귀족 통치 기구의 내적 모순을 은연하게 발로하기 시작한 당시의 정세를 반영한다면, 월명과 충담이 활동하던 8세기 중엽에는 모순이 자못 격화하기 시작하여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정권에 의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들은 중앙 집권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21) 『조선문학통사(상)』, 25쪽.

22) 『조선문학통사(상)』, 27쪽.

23) 『조선문학통사(상)』, 27쪽.

그것을 극복하는 한편 확호한 통치 리념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였는 바, 이러한 정형은 당시의 저명한 시인들인 월명과 충담의 작품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²⁴⁾

③ <<삼국유사>>의 기록이 농민 봉기군을 불교도의 입장에서 극악한 이 단자로 보고 그들이 지배계급을 반대해서 싸우는 것은 물욕 때문이며 그들의 투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사회생활에 대한 허무주의적 사상을 선전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²⁵⁾

①-a는 <혜성가>에 대한 해석이다. 이 노래는 아직도 정확하게 해독되지 않아 의미해석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노래에 상정된 ‘주술’이 현실적 상황과 직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방증은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 노래가 ‘혜성과 왜군 때문에 조성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를 말한 교훈’²⁶⁾이라 해도, ‘신라 인민들이 전개하던 왜구 격퇴를 위한 애국적인 투쟁 현상의 반영’으로 읽어 ‘반외세의 주제의식’ 혹은 ‘반침략 애국투쟁’의 이념적 모토와 직결시킨 것은 지나치게 의도적이라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사랑의 계략과 성숙’²⁷⁾으로 읽히는 <서동요>를 ①-b에서처럼 ‘고대 인민들의 근로 생활과 소박한 행복에 대한 꿈’으로 해석한 것은 강한 이념적 의도의 소산이고, ①-c에서 ‘苦海 속의 존재라는 자아인식’으로 해석했어야 할 ‘서럽더라[哀反多羅]’를 ‘고통스러운 현실 생활에 시달리는 이 시기 인민들의 자탄과 신음의 읊조림’으로 풀어낸 것은 계급 투쟁적 역사관에 바탕을 둔 이념 과잉적 해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모죽지랑가>와 <현화가>, <원가>를 ‘애국·반외세 투쟁·지배체제의 모순’ 등 당시 현실의 소산으로 해석한 것이 ②의 핵심이다. ‘삼국 통일사업 준비기의 양양된 애국적 분위기’ 속에서 악한 관리 익선의 손아귀에

24) 『조선문학통사(상)』, 44쪽.

25) 『조선문학통사(상)』, 49쪽.

26) 조동일, 앞의 책, 166쪽.

27) 신재홍, 『향가의 미학』, 집문당, 2006, 410~412쪽 참조.

잡혀 있던 자신의 낭도를 빼내 온 죽지랑의 형상이야말로 ‘민족통일의 지상명령의 체현자’²⁸⁾이고, ‘집단노동에서의 일치된 합성이 인간을 지배하는 신의 의지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신념을 통해 ‘생활의 어려운 고비를 해결하는 주체는 지배계급이 아니라 인민집단’임을 강조한 <헌화가>는 ‘반외세 투쟁’으로 연결되며, ‘지배계급의 정권쟁탈 분쟁이 빚어낸 탄식’인 <원가>는 통치체제의 모순과 계급투쟁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세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던 영재가 도적을 타일러 감화시키기 위해 지어 부른 <우적가>를 ‘모순으로 충만한 시대 현실, 그로 인한 민중의 봉기, 그에 대한 기만적 마무리’로 해석한 것이 ③의 핵심이다. 영재가 만난 도적들이 사실은 모순의 극한상황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군으로서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데, 『삼국유사』의 기록자가 단순히 불교적 입장에서 그들을 ‘물욕에 지배당하는 도적’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영재가 그들을 맞이한 태도는 그의 ‘사상적 발전’의 면에서 볼 때 긍정적이었으나, 그 ‘인민 봉기군’을 지리산 속에 영구히 가두는 것으로 끝냈기 때문에 ‘인민의 참된 지향에 위반된다’²⁹⁾는 것이다.

이처럼 주체사상 이전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비록 고전시대의 향가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예이론의 합목적적 기준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 핵심적 내용은 ‘인민성에 기반을 둔 집단성, 계급투쟁, 반외세 투쟁’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주체사상의 단계에 좀 더 목적 지향적으로 구체화 된다.

2.2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지속과 주체미학의 가세: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와 『조선문학사 1』

28) 『조선문학통사(상)』, 40쪽.

29) 『조선문학통사(상)』, 50쪽.

2.2.1 주체미학적 해석의 가능성 모색: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의 바탕 위에서 나왔고,³⁰⁾ 당성·노동계급성·역사주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족사와의 밀접한 관련 아래 당대의 사회제도·계급투쟁·경제관계·정치 및 다른 사회적 의식형태들과 예술형태들의 상관성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고찰하는 것이 과학적인 문학사 서술의 방법임을 밝히고 있는 이상,³¹⁾ 주체사상 이전과 이후의 문학사들이 큰 차이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면 자민족 제일주의,³²⁾ 민족사의 배타적 특수성, 적극적 외세 배경 등등 앞 시기에 표면상으로나마 강조했던 보편 지향적 세계관과 다른 양상의 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일 텐데,³³⁾ 그 점 역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주체사상 전반기 문학사로 볼 수 있는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의 서문 첫머리에서 저자들은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슬기롭고 재능 있는 인민이다. 먼 옛날부터 발전된 문화생활을 하여 온 조선 인민은 풍부하고도 다양한 문학유산을 남기었다.”³⁴⁾고 함으로써 김정일이 언급한 ‘자민족 제일주의’의 정신을 문학사 기술의 원칙으로 삼았음을 암시한 셈이다. 그와 함께 다음과 같은 언급을 마무리 부분에 배치

30)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102쪽 참조.

31)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상·중·하 3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761쪽 참조.

32) 김정일, 앞의 책, 84쪽의 “세계혁명 앞에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닌 첫 째 가는 임무는 혁명의 민족적 임무인 조선혁명을 잘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른 민족을 깔보고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 내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로 될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참다운 애국주의자인 동시에 참다운 국제주의자입니다.” 참조.

33) 사실 김정일은 자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 내세우지 않는 국제주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자민족 제일주의가 배타적 민족주의로 귀결되는 것이 필연적임은 나찌즘이나 파시즘의 역사적 선례에서 입증되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이 ‘자민족 제일주의와 국제주의’를 동시에 견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34)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1쪽.

함으로써 이 문학사가 ‘주체미학에 의한 문학사’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필자들은 조선문학사 연구에서 이룩된 이전의 성과들과 경험들에 토대하면서 구성체계와 서술방법, 문학운동과 문학작품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새롭게 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새로운 자료들을 보충하였다. 특히 문학사의 서술체계와 서술방법으로부터 구체적인 문학현상을 분석평가하는 데 이르기까지 서술전반에서 주체의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³⁵⁾

말하자면 저자들이 분석·평가·서술을 새롭게 했으며, 서술에서 ‘주체의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인데, 무엇이 주체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의 향가 관련 기록들을 중심으로 그 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6세기 말~7세기 초에 향찰 표기법에 의한 시가창작이 진행됨으로써 ‘민족시가 형식’인 향가가 출현했다고 본 점, ‘향가’란 향찰 표기법으로 된 시가들을 통칭하는 말일 뿐 특정한 시가형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10구체 향가가 예술적으로 세련되고 정제된 고유시가 형태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 10구체 향가는 우리나라 국어시가에서 첫 정형시 형식으로서 고려 국어가요·경기체가·시조 등 그 후 민족시가 형식의 출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 통일 이전의 향가인 <서동요>·<풍요>·<혜성가> 가운데 전2자는 당시 인민들 사이에서 불리던 구전가요를 향찰 표기법으로 적은 것이고 후자는 개별적인 시인에 의하여 향찰 표기법으로 창작된 것이라는 점 등³⁶⁾은 앞 시기에 보여준 관점과 일치한다.

통일 이후 향가의 전개에 대해서도 큰 차이 없는 견해를 드러냈다. 초기 향가들은 민요를 향찰로 기록했거나 중들이 창작한 것들이었음에 반해 7세기 후반 이후의 경우 중과 화랑은 물론 평범한 노인, 부녀자, 아이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창작에 참여했다는 점,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사람들이 창작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정치적 문제·인정세대·전설적 성격

35)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2쪽.

36)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61~62쪽 참조.

등 다양한 주제 영역을 포괄하게 되었다는 점, 이 시기에 이르러 10구체의 정형시가 형식으로 완성되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³⁷⁾

이와 함께 몇 작품의 해석을 중심으로 향가에 관한 이 시기의 시각과 관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이 노래의 밑바닥에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려는 당시 사람들의 꿈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근로하는 가난한 층각이었던 서동을 공주와 결합시키고 왕으로까지 되게 한 것은 온달에 대한 이야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적 제한성에서 온 것이었다.³⁸⁾

② 불교를 극력 내세웠던 신라 봉건국가의 통치배들과 그들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았던 중놈들은 2중 3중의 봉건적 억압과 착취 속에서 신음하는 가난한 인민들에게 부처를 숭상하고 ‘공덕’을 닦으면 죽은 다음에 ‘극락세계’에 가게 된다고 설교하면서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날뛰었다. 풍요는 허황한 불교교리로서 인민들을 기만하고 그들에 대한 약탈을 감행한 중놈들의 악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노래에는 중세기적 암흑 속에서 아무런 기쁨도 없이 서럽게 살아가면서도 그 사회적 근원과 출로를 모르는 데로부터 중들에게 기만 당하여 심한 고통을 겪은 당시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와 소박한 생활감정이 반영되어 있다.³⁹⁾

③ <혜성가>는 주술적 목적을 추구하고 화랑들의 풍류를 찬양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나 거기에는 옛날부터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킨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사실이 반영되어 있다.⁴⁰⁾

④ 노래에서 꽃을 꺾어주고 받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설화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착취하고 압박하는 사람과 억눌리고 천대받는 사람 간의 관계라 기보다도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로서 거기에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뜨거운 정과 아름다운 마음씨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37)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72~73쪽.

38)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62쪽.

39)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62~63쪽.

40)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64쪽.

다.⁴¹⁾

⑤ 부모와 형제간에 아끼고 사랑하며 이웃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품성의 하나이다. 노래에서는 한 피줄을 타고 태어나 정답게 자라난 누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말도 나누지 못한 사랑하는 누이를 그리는 서정적 주인공의 심정이 아무런 수식도 없이 생활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그러나 마지막 분절에서 노래는 누이를 잃은 서정적 주인공의 비통한 감정을 불교적 관념에 기초한 부질없는 위안으로 바뀌어지고 있다.(…)이 것은 당시 널리 퍼지고 있던 불교사상의 부정적 영향의 반영으로서 중이었던 작가의 세계관적 제한성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다.⁴²⁾

①은 앞에서 ‘고대 인민들의 근로 생활과 소박한 행복에 대한 꿈’으로 설명한바 있는 <서동요>에 대한 해석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관적 제한성’이란 가난한 인민을 대표한 서동이 왕을 포함한 지배계급에 저항하거나 투쟁하는 대신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겠다는 비현실적 꿈을 가진 점에 대한 저자들의 비판적 지적이다. 왕이 되는 대신 박해받는 서민들을 대표하여 권력계급과 투쟁을 벌이는 것이 주체미학의 범주에서 이상적 역할이라는 가정이었을 것이다. 해석의 결론으로 이념적 당위성을 제시했을 만큼 필자들이 주체미학 구현에 일종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음을 ①은 암시한다.

②는 <풍요>에 대한 언급인데, ‘고통스러운 현실 생활에 시달리는 이 시기 인민들의 자탄과 신음의 읊조림’으로 풀어낸 앞 시기의 해석에, 인민의 고통은 불교와 승려계층이 기만적으로 내세를 강조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고 그를 틈타 약탈을 일삼은 데서 나왔다는 그들 나름의 판단을 덧붙인 생각의 체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노래나 배경설화의 분석에서 도출되는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이 설정한 계급투쟁의 구도를 바탕으로 演繹과 의미적 비약을 마다 않는 이념적 과잉해석의 오류를 노정시

41)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73쪽.

42)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74~75쪽.

키게 된 것이다.

③의 <해성가> 해석은 앞 시기의 그것[‘주술적 목적을 추구하여 불렀지만, 그 속에는 당시 신라 인민들이 전개하던 왜구 격퇴를 위한 애국적인 투쟁 현상이 반영되어 있음’]과 정확히 부합하며, ④[<헌화가>]의 경우는 집단노동에서 민중의 일치된 함성이 신의 의지까지도 좌우하는 만큼 생활의 어려운 고비를 해결하는 주체는 지배계급이 아니라 인민집단’임을 강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반외세 투쟁’의 이면적 의미까지 읽어낸 앞 단계의 해석과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즉 이 경우는 계급투쟁보다 ‘같은 처지의 구성원들 사이에 오고 가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뜨거운 정과 아름다운 마음씨’를 강조한 셈인데, 주체사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장점’을 이 노래의 해석에서 제시하고자 한 의도의 소산으로 생각된다.

⑤에서 <제망매가>에 등장하는 형제간의 사랑을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품성의 하나’라고 하여 자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주체적 이념성을 노출시켰다. 『조선문학통사(상)』의 해당 노래 해석에서 저자들은 ‘내세에 대한 신념이나 극락에 대한 동경’ 등을 불교적 환상으로 비판한 바 있는데, 그런 점을 ‘작가의 세계관적 제한성’으로 비판하면서도 민족적 품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해석의 한 갈래라 할 수 있다.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주체미학이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친 시기라 할 수 있다. 주체미학 역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했음을 감안한다면, 주체사상 이전의 문학사와 이 시기의 문학사가 그리 현격하게 다를 이유는 없을 것이다. 향가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이 시기의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는 이전 시기의 관점을 대폭 수용한 바탕 위에 주체미학의 관점을 가미하려는 의욕을 보여줌으로써 두 시기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2.2.2 주체미학을 포괄하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지속: 『조선문학사 1』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으로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⁴³⁾이 김정일의 주장이다. 그 ‘지도적 지침’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등을 구현하는 것이며, ‘창조적 방법’은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 등이라고 설명된다.⁴⁴⁾ 주체사상이 국가의 이념으로 확립된 1990년대에 들어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에 의해 『조선문학사』 15권이 발간되는데, 주체사상을 가장 확실하게 반영한 결과가 바로 이 문학사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머리말의冒頭에 제시된 김일성의 교시⁴⁵⁾와 뒷부분에 제시된 김정일의 지적⁴⁶⁾은 문학의 장르나 작품에 대한 해석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강령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외세 및 반동 통치배들과의 투쟁, 인류 과학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 재능 있는 민족, 발전된 문화와 독자적인 삶의 자부심’ 등이 두 사람의 말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우리 역사와 문화의 공통점이며, 특히 ‘주체적 립장에서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우리나라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옳게 해명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주어야 한다’는 김정일의 말은 북한문학사 서술의 지침으로 삼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앞의 문학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향가 장르의 성립에 관한 서술을

43) 김정일, 앞의 책, 24쪽.

44) 같은 책, 64~71쪽.

45) 『조선문학사 1』, 1쪽의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일 민족이며 옛날부터 외래 침략자들과 력대 반동 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워 온 용감하고 꿩이 있는 민족이며 인류의 과학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재능 있는 민족입니다.<<김일성저작집>> 1권, 233페이지)” 참조.

46) 같은 책, 2~3쪽의 “우리 민족이 먼 옛날부터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살아 온 것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자랑입니다. 우리는 주체적 립장에서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우리나라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옳게 해명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 주어야 합니다.” 참조.

앞세우고 있다. 특히 향찰에 의한 書寫化 과정을 거쳐 정형시가로서의 형태적 특성을 완성한 것이 대체로 7세기 후반이지만, 그런 부류의 최초 노래는 ‘사녀격을 지닌’ 기원 28년의 <두물가>로부터였다는 점, 따라서 <두물가>로부터 노래와 음악이 시작되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우리나라 가요음악의 역사적 시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녀의 격을 갖춘 민족시가 형태로서의 향가가 <두물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힌 것이라는 점, 8세기에 창작된 월명사의 <두술가>를 그가 같은 시기에 지은 <제망매가>와 대비해 보면 기원 1세기에 창작된 <두물가>의 형식에 노랫말만을 바꾼 것으로 짐작된다는 점, <두물가>로부터 시작하여 향찰 표기에 이해 서사화 과정이 완성되기 이전 시기의 초기 향가작품들로서 현재까지 가사가 전해지는 것은 <서동요>·<풍요>·<혜성가> 등 세 편뿐인데, 이 가운데 <서동요>와 <풍요>는 구전으로 창작·전승되다가 7세기 후반 이후 향찰 표기법에 의해 기록되었고, <혜성가>는 향찰을 서사의 수단으로 창작된 최초의 작품이라는 점 등⁴⁷⁾을 밝혔다. ‘인민의 집단적 노동요’가 ‘개인 창작 노래’로 바뀜으로써 향가의 존재론적 범주가 확장되었다거나, 노래가 향찰에 의한 記寫의 단계를 거치면서 加工되었고, 그 결과 ‘향가’라는 시문학으로 바뀐 과정을 보여준 앞의 문학사들과 달리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향찰 표기법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언명으로 단순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선행 문학사들이 강조한 ‘加工’의 부분을 생략한 셈인데, 선행 문학사들의 주장을 부정해서라기보다는 변이나 발전의 과정을 단순화시킴으로써 ‘향찰’의 존재를 부각시키고자 한 의도였으리라 본다. 무엇보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녀가의 초기 형태로 구전되던 1세기 <두물가>의 악곡에 향찰로 기사된 노랫말을 채워 넣음으로써 불교적 내용을 다룬 월명사의 <두술가>가 비로소 가시화되었다는 점을 그 주장의 예로 제시했을 것이다.

개별 작품들에 대한 해석 또한 앞 시대의 문학사들과 별반 다를 것이

47) 『조선문학사 1』, 182~184쪽.

없다. ‘가난한 홀어미의 아들을 왕으로까지 되게 한 것, 신비하고 미신적인 출생담 등 일련의 제한성은 있으나 거기에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려는 당시 사람들의 소박한 소원이 깃들어 있다’고 본 <서동요> 해석,⁴⁸⁾ ‘주술적인 목적을 추구한 점에서 제한성을 갖고 있긴 하나 시적 언어표현이 비교적 세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민족의 투쟁사적을 일정하게 반영한 10구체 향가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본 <혜성가> 해석,⁴⁹⁾ 해룡에게 잡혀간 수로부인을 인민들이 구출해냈다는 점에서 노래에서 꽃을 주고받는 행위는 아름다운 꿈을 안고 낭만에 넘쳐 사는 사람들 사이의 일이며, 거기에는 서로 존경하고 연모하는 뜨거운 정과 생활낙천의 정서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본 <헌화가> 해석,⁵⁰⁾ 출세와 물욕에 빠진 통치배들의 가혹한 착취와 파렴치한 약탈로 말미암아 국정이 약화되고 나라에 큰 혼란이 조성되고 있던 당대 사회현실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한다고 본 <안민가>⁵¹⁾ 등 향가 작품들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앞 시기 문학사들과 별반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불교의 폐해나 부정적인 측면을 문학사의 전개와 결부시키려는 의도를 강하게 노출시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북한의 이념 체계에서 향가의 발생이나 현실적인 효용성, 사상적 기반 등과 관련하여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던 외래종교 불교는 향가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었다. <천수대비가>, <원왕생가> 등 불교적 색채의 노래들은 모두 불교의 교리를 설파하고 부처의 공덕을 찬미함으로써 통치계급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복무해왔다는 점, 인

48) 『조선문학사 1』, 185쪽.

49) 『조선문학사 1』, 187쪽.

50) 『조선문학사 1』, 219~220쪽. 그러나 앞 단계에서는 “‘집단노동에서의 일치된 합성이 인간을 지배하는 신의 의지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신념을 통해 ‘생활의 어려운 고비를 해결하는 주체는 지배계급이 아니라 인민집단’임을 강조한 <헌화가>는 ‘반외세 투쟁’으로 연결된다”는 요지의 관점을 보였는데[『조선문학통사(상)』, 44쪽], 이 점으로 미루어 앞 단계 문학사의 해석이 좀 더 이념 지향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51) 『조선문학사 1』, 226쪽.

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법적 보호 밑에 성행하고 신분이 천하고 권세 없는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이 강요되는 불합리하고 모순에 찬 사회 현실 속에서 날로 증대되는 인민들의 불만과 반항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저들의 지배와 수탈에 순종시키기 위한 통치배들의 이해관계가 이런 작품들에는 반영되어 있다는 점, 향가 창작에서 불교 교리의 찬양과 금욕주의의 반영은 고려시기에 창작된 균여의 향가 11수에 더욱 경향적으로 나타났으며, 향가는 바로 이런 제한성 때문에 결국 생활적 바탕을 잃고 그 존재를 마치게 되었다는 점 등⁵²⁾이 향가의 장르적 종식에 불교가 절대적인 원인이었음을 강조한 내용이다. 교리에 바탕을 둔 불교의 설득이나 부처의 공덕에 대한 찬미와 함께 통치 집단과의 제휴를 통한 현실적인 힘이 민중의 불만과 반항의식을 마비시켰다고 본 것이 불교에 대한 문학사 저자들의 부정적 관점이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 미학에서 중시하던 비판적 사실주의의 실종과 맥을 같이 하는 점이다. 특히 외래 종교인 불교가 통치 집단과 긴밀하게 제휴하여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판단력을 마비시킴으로써 결국 우리 고유의 문학 장르인 향가를 고사시키게 되었다는 것인데, ‘외래 종교인 불교 : 우리 고유의 문학 장르인 향가’처럼 양자를 대립 관계로 파악·제시함으로써 불교가 원시종교, 유교 등과 함께 향가의 사상성이나 서정성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남한 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크게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향가를 중심으로 이 책이 보여주는 분석의 관점이나 방향이 얼마간 정돈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주체사상 이전이나 이후의 문학사적 관점과 크게 다른 점을 찾기는 어렵다. 그것은 현재 남아 있는 향가들이 향찰 즉 우리의 독자적 표기체계로 정착된 최초의 노래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았고, 무엇보다 작품에서 읽어낼 만한 계급이나 이념투쟁 혹은 외세와의 투쟁적 요소 등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52) 『조선문학사 1』, 227쪽 참조.

3. 결론

문학작품이나 작가, 배경적 사건 등 문학사적 사실들을 선택한 다음 그것들을 해석하여 통시적으로 체계화 시키면 문학사가 된다. 북한의 문학사에 기술된 향가를 중심으로 그에 적용된 해석의 관점이나 의미를 찾아 보고자 한 것이 본고의 목적이었다. 향가는 표기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 고전시가의 출발점으로 남북한 모두 인정하는 장르다. 따라서 문학사 기술의 첫 작업이라 할 수 있는 ‘문학사적 사건의 선택’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 셈이다. 문제는 해석의 관점이다. 본고에서 사용한 세 가지 텍스트는 『조선문학통사(상)』(1959) ·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1977) · 『조선문학사 1』(1991) 등인데, 전자는 주체사상 등장 이전의 저술, 후2자는 주체사상 정립 이후의 저술들이다. 『조선문학통사(상)』는 맑스-레닌주의적 방법과 역사주의에 기초하여 문학사를 서술했음을 밝혔고, 후2자들은 그와 함께 주체미학적 관점을 강조했다.

우선 향가의 濫觴을 ‘인민대중의 집단적 노동요’ 즉 ‘두렛노래’에서 찾은 것은 북한의 모든 시기 문학사들에서 공통된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필수요건인 ‘인민성 · 당성 · 노동계급성’ 가운데 인민성과 노동계급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점이었을 것이다. 노동계급으로서의 인민대중 속에서 생활가요로 불리다가 상당기간 후에 고안된 향찰 書寫法으로 기록되면서 구체적인 시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그 書寫의 과정은 형식적 整齊를 이루어 나가던 加工의 과정이기도 했다는 것이 그들의 관점이었다. 노래 즉 ‘ 읊던 시가’에서 시문학 즉 ‘쓰는 시가’로의 전환을 향가에서 찾아낸 점은 고대시가 사적 전개 양상의 합리적 발견인 셈이었다. 그러나 개별 노래들에 대한 해석의 경우 이념적 과잉의 모습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문학을 ‘사회주의 혁명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던 이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고전시대의

향가라 해도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문예이론의 합목적적 기준에 맞도록 해석해야 했고, 그 핵심 내용인 ‘인민성에 기반을 둔 집단성, 계급투쟁, 반외세 투쟁’ 등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했다.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과 부합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과도한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람 중심의 철학’이란 모토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지도적 지침으로 내걸고,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 등을 창조적 방법으로 강조한 주체사상의 시대에도 문학사 서술의 기초만큼은 앞 시기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주체사상 자체가 정치·외교적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 삶의 노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견지해오던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미학의 근본까지 변화시켜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주체미학을 문학사의 강령으로 내세웠으면서도 앞 시기의 문학사에 제시한 작품 해석의 경향이 지속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시기나 북한의 문학사들에서 향가가 비판되는 주된 요인은 불교 때문이었다. 상당수의 향가들이 불교의 교리를 설파하거나 부처의 공덕에 대한 찬미를 통해 통치계급의 정치적 목적 실현에 복무해왔다는 점, 불합리와 모순의 사회 현실 속에서 인민대중의 불만과 반항의식을 마비시켰다는 점 등이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본 것이다. 그런 불교적 사유방식은 고려시대에 창작된 균여의 향가 11수에서 더욱 심화되었으며, 그런 문제 때문에 향가는 결국 생활적 바탕을 잃고 그 존재를 마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가에 대한 북한문학사들의 해석이 비교적 정돈된 느낌을 준다거나 주체사상 전·후의 관점들 사이에 큰 차이를 읽어낼 수 없는 것은 그들의 관점에서도 문헌에 남아 있는 향가들이 향찰이라는 우리 독자적 표기체계로 정착된 최초의 노래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작품에서 읽어낼 만한 계급이나 이념투쟁 혹은 외세와의 투쟁적 요소 등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향가 장르의 역사적 전개나 작품의 해석에서 이

넘 과잉으로부터 생겨나는 작위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나마 그들 논리의 합리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대행, 『북한의 시가문학』, 문학과비평사, 1990.
김동욱, 『韓國歌謠의 研究』, 을유문화사, 1976.
김완진,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 출판부, 1981.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반교어문학회, 『신라가요의 기반과 작품의 이해』, 보고사, 1998.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상·중·하 3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사회과학출판사, 『우리 당의 문예정책』, 사회과학출판사, 1973.
설성경·유영대, 『북한의 고전문학』, 고려원, 1990.
신재홍, 『향가의 미학』, 집문당, 2006.
양주동, 『增訂 古歌研究(重版)』, 일조각, 1981.
李家源, 『三國遺事新譯』, 태학사, 1991.

- 임기중,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 : 呪力觀念을 中心으로』, 이우출판사, 1981.
- 정홍교, 『조선문학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91.
- 조규익, 「한국고전시가사' 서술 방안」, 『한국시가연구』 창간호, 한국시가학회, 1997, 148쪽.
- 조규익, 「통일시대 한국고전문학사 서술의 전망」, 『온지논총』 11, 사단법인 온지학회, 2004, 111쪽.
-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200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
- 조윤제, 『조선시가사강』, 동광당서점, 1937.
- 최 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 최남선, 『三國遺事』, 서문문화사, 1983.
- 홍기문, 『향가해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1956.

<Abstract>

Hyangga in the North Korea's Literary Histories

Cho, Kyu-ick

Joseonmunhaktongsa(Sang), Joseonmunhaksa(Godae-Jungse pyeon), Joseonmunhaksa 1 are the texts that I used in this paper. The former is the book written before appearance of Juche Idea, and the latter two are the books written after establishment of Juche Idea. The authors of the former declared that they narrated their literary histories on the basis of Marxism-Leninism and historicism, the authors of the latter two emphasized the aesthetic view of Juche Idea with it. The viewpoint that Hyangga was originated from the people's collective work folk songs i.e. Dure songs is common in all the literary history books of North Korea. It might be necessary to emphasize the tendency of people and working class of the mandatory requirements of social realism. Hyangga was a genre that emerged as a concrete poetic form, being written in Hyangchal as the writing means created after long time when the working class had sung them as their living songs. Therefore, the process of writing the songs was a process of manufacture that had been refined formally. And, to find out the changeover from song i.e. 'poem reciting' to poetry i.e. poem writing was a reasonable discovery of aspect of developing the poetry history. It was a natural result to the people who recognized literature as the means of assistance for socialist revolution that showed the appearance of ideological exces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individual songs. They had to interpret the songs reasonably even in the realm of the Hyangga of Classic age, and the result of interpretation had to coincide with collectivity, class strife, and strife against foreign power on the basis of people tendency. The keynote for narrating literary history was not changed so much even in the time of Juche Idea. There was no reason that they had to change the aesthetic basis of social realism which North Korea have reassured itself for a long time. We can find out the reason that the tendency of interpreting works in the former literary histories held out, despite they rendered Juche aesthetics as their own doctrine. Because it is not easy to find out the negative points in that Hyangga works were the first stage's songs written in our own writing system i.e. Hyangchal, the interpretation of Hyangga in the North Korea's literary histories seems to be rather a little neat. And, it is because Hyangga works have a little element of class, ideology strife or strife against foreign power. Despite we can't deny the mendacity from excess of ideology in Hyangga's historical development or interpreting works, also there is a reason to recognize their own rationality partly in this point.

Key words : North Korea's Literary History, Hyangga, Hyangchal, Class Strife, Strife against Foreign Power, Social Realism, Juche Idea

투고일 : 2015년 1월 12일, 심사 : 1월 19일~2월 12일, 게재확정 : 2월 12일